

‘타짜3’ 박정민 “원작 이기려는 영화 아냐”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보이고 싶었다”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에서 도일출 역할로 분한 박정민(32)을 만났다. 박정민은 지난 2011년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해 단숨에 총무로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이후 ‘맨션’ (2012), ‘전설의 주먹’ (2013), ‘피끓는 청춘’ (2014), ‘들개’ (2014), ‘오피스’ (2015) 등으로 이어지는 연기활동을 해왔다. ‘동주’를 통해 관객과 평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배우로 부상, 이후 영화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작품을 통해 총무로의 보배로 자리 잡았다.

▶ ‘타짜’는 마니아가 워낙 많아서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언제 부담감이 제일 컸나요.

- 그 부담감은 사실 작품 선택 때와 개봉 전에 느낀 부분이에요. 그때를 제외하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면서 촬영하진 않았어요. 기존에 했던 영화들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 영화는 어쨌든 의지할 데가 많았어요.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도 그렇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막상 촬영하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 부담감과 무게감, 그런 게 체감 되는 순간은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개봉 앞뒀을 때인 것 같아요.

▶ ‘타짜’의 원작은 봤나요.

- 저도 원작의 팬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는 1편과 2편에 출연하신 선배님들, 연출하신 감독님들 다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서 모르지만 팬으로서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었죠. 그런 시리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찍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겨 먹으려고 찍은 건 절대 아니에요. (웃음)

▶ ‘타짜3’는 박정민에게 팬으로서의 헌정 영화 같은 것이기도 할까요.

-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타짜’라는 영화의 시리즈에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영화를 찍었어요. 이 분들보다, 이 작품들보다 훌륭해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찍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죠. 최동훈 감독님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 감독님은 왜 정민씨가 도일출을 하길 바랐을까요.

-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했던 일출이가 이상무와 승부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이후에 겪는 극적인 변화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도일출의 초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걸 표현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 카드 연습을 7개월 가량 했다고요.

- 물리적인 시간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웃음) 그런 시간을 수차례 내세우면 부담스러워요.

▶ 지금 영화계에서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에요. 매너리즘은 없었나요.

- 작품을 하나씩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보자, 촬영하면서 중간에 위기가 찾아온 적은 있어요. ‘타짜3’ 촬영 중에 증반부 넘어갈 때 조금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긴 회차 찍어본 영화가 없었어요. ‘타짜3’는 70회차 가까이 찍었어야 했는데, 40회차 이상 찍어본 영화가 없었던 거예요. 긴 촬영에 몸이 적응이 안 돼 있었나 보더라고요. 40회차 넘었을 때 ‘이 정도면 끝날 시기인데 왜 안 끝나지’ 했어요. (웃음) 아직도 촬영이 반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류승범 형이 본인이 겪으셨던, 저보다 더 어린 나이 때 영화하시면서 겪었던 걸 얘기해주셨어요.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셨어요.

뉴스1

‘뽕따러가세’ 송가인, 초대형 선상 콘서트 개최

준비 기간만 4개월...오늘 오후 방송



‘뽕 따러 가세’ 송가인, 봄이 준비 기간만 4개월 걸린 초대형 뽕밭 프로젝트 ‘합정 위 선상 콘서트’를 펼친다.

19일 방송되는 TV CHOSUN ‘송가인이 간다-뽕 따러 가세’(이하 ‘뽕 따러 가세’) 10회에서는 송가인과 봄은 대한민국 두 번째 큰 합정에서 펼쳐는 대형 뽕밭 프로젝트 ‘초대형 선상 콘서트’가 공개된다.

뽕 남매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는 5번째 뽕밭 인천광역시에 도착, 사연자를 만나러 가기 전 서해 바다의 명물 꽃게 집에 들러 꽃게 5종 세트 먹방을 선보이며 흥분을 터트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사연자가 있는 곳에 도착한 두 사람과 제작진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해 바다 38선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해양경찰로 활동 중인 사연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보안을 거쳐야 했던 것. 더욱이 철통 보안을 무사히 통과하고 해경 부두로 들어선 송가인과 봄은 서로의 신분증을 보며 부끄러운 과거를 공유하고 회상하며 한층 더 돈독해지는 케미를 터트리 두 사람의 신분증 공개 타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연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합정에 오른 뽕남매는 10년 장기 연애 끝

에 올해 결혼했지만,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달콤한 신혼 생활을 포기한 사연자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연자는 서해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탓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아내에게 전했고, 송가인은 사연자를 위해 ‘넌 먼 곳에’를 열창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감사함과 위로를 건넸다.

이뿐만 아니라 뽕남매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해양 경찰들을 위해 합정 위 ‘초대형 선상 콘서트’를 이어갔다. 서해 5도 특별 경비단 3008함 해양 경찰들의 노고를 응원하기 위해 차떡 선곡인 ‘항구의 남자’를 열창, 50여명의 해양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했던 것.

블록버스터 급 5번째 뽕밭 스케일에 관심이 초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해양경찰 사연자가 보내는 사연은 ‘뽕 따러 가세’ 초창기에 도착했던 사연으로 바로 달려가 위로를 전하고 싶었지만, 장기간 출동에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스케줄 상 일정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며 “장장 4개월 동안 준비해 어렵게 이뤄진 최대 규모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송가인과 특급 도우미 봄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오지까지 찾아가 자신의 노래를 팔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글로벌 힐링 로드 리얼리티 ‘뽕 따러 가세’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장동건 · 지창욱 · 정해인 · 이광수 · 용성우 ‘2019 AAA’ 참석 확정



왼쪽 상단부터 세계방향으로 배우 장동건, 지창욱, 용성우, 이광수, 정해인

배우 장동건, 지창욱, 정해인, 이광수, 용성우가 ‘2019 Asia Artist Awards’(이하 ‘2019 AAA’)에 참석, 자리를 훈훈하게 채운다.

오는 11월26일 베트남 하노이 마담 주립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초 가수, 배우 통합 시상식 ‘2019 AAA’에 올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남자 배우 5명이 참석, 멋진 모습으로 더욱 빛나는 시상식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장동건은 영화는 물론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력을 과시, 매 장면 눈을 땔 수 없는 외모로 대한민국 마남 대명사로 떠오른 국민 배우다.

뮤지컬을 비롯해 스크린과 인방극장을 종횡무진 활약 중인 배우 지창욱은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2019 AAA’에도 출연한다.

한편 이광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번 ‘2019 AAA’는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해외 팬들 앞에서 시상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더욱 뜻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인기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사전 인기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